

지금, 현재를 위한 담론

한살림 청년 조합원 먹거리 인식조사 결과발표회 자료집

결과발표회는 현재를 위한 담론- 한살림 청년 조합원 먹거리 인식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한살림 구성원 혹은 관심자에게 공유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회는 단순히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발표회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연구 파트에 대한 소개와 내용과 연관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일시 : 2022년 9월 7일 수요일 19시~22시

1부

우리가 왜 연구를 시작했나면요
- 먹거리 활동을 시작한 '나'의 이유

발제
- 기현(연구팀)

토론
- 가영(벗밭)
- 유기농핑크
- 연다(소농로드)

2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위한 담론
- 한살림에서 청년 하기

발제
- 진아(연구팀)

토론
- 현이(한살림실무자)
- 은주(한살림생산자)
- 소현(한살림조합원)
- 경민(한살림활동가)

3부

일곱 가지 키워드로 본
한살림의 '청년 되기'

발제
- 주석(연구팀)

토론
- 우준(한살림활동가)
- 소영(한살림활동가)
- 슬기(한살림활동가)
- 은빈(청년기후긴급행동)



1부. 우리가 왜 연구를 시작했냐면요

모심과살림연구소 청년연구팀 배기현

‘먹거리’ 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나요? 먹거리와 청년을 검색하면 지원사업 등 시혜나 지원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모심과살림연구소 청년다양성모임 <미담 1기>의 두 가지 주제 중 ‘먹거리’ 주제로 활동을 갈무리하며, 한살림 청년 조합원 연구를 제안받았습니다. 저희는 한살림 안에서의 청년은 먹거리와 삶을 어떤 이야기로 연결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모으는 작업의 일환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이나 사회에 비치는 청년의 먹거리는 양극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선 청년 빈곤으로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으로 삶에서 식사를 가장 먼저 포기하는 청년이, 다른 한쪽에선 먹방이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고, 건강은 뒷전인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비거니즘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 여러 먹거리 관련 활동을 보면, 먹거리 및 그 기반인 삶과 연결된 다양한 의제가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먹거리 공부모임과 수다회를 통해 먹거리에 관한 한살림 청년 조합원 및 비조합원의 목소리를 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먹거리 공부모임에선 한살림선언과 모심과살림지, 여러 먹거리 정책 및 연구자료, 칼럼 등 다양한 자료를 탐색했습니다. 한살림선언을 읽으며 지금의 시대에는 어떻게 읽혀야 하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생존과 경쟁 사이에서 어떤 가치가 우선되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합원으로써 한살림이 나에게 어떤 공간인지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먹거리 수다회’에선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먹거리와 삶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다회에 참여한 9명의 생산자 및 소비자 청년조합원들은 수동적 존재로 먹거리를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먹거리 인식과 경험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기준에 우선하는 가치로 두고 다양한 실천을 만들어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내가 먹는 것과 그 영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군대 보급병으로 활동하며 먹거리와 사회 구조의 연결성을 느낀 조합원도 있었고, 건강이 나빠져서 혹은 농활과 공부를 통해 한 끼 식사를 선택하게 되기까지 영향을 주는 여러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게 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하나의 문화로 비거니즘을 접하며 먹거리를 선

택하는 기준이 ‘다른 존재를 생각하는 먹거리’로 확장 혹은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건강부터 환경, 생협이라는 새로운 조직, 먹거리의 이면에 있는 사회적 문제 등 개인적 경험이 확장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나에게 오기까지 어떤 맥락을 안고 오는지 알게 되면서 더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방식의 삶을 추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공통적으로 ‘건강함’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을 넘어서, 즉 영양이나 식습관으로서의 먹거리를 넘어 관계 안에서의 건강함으로 확장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동물권, 비거니즘에 관심을 가지며 채식을 지향하는 이들은 동물과 다른 생명의 건강함을, 먹거리 활동가 중 한 명은 유기적 관계에 대한 의미에서 관계를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식사는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 중 하나로, 삶의 문화와 환경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나의 한 끼 식사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눈을 돌리게 될 때, 우리는 관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토론: 지금 당장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한 이유

수다회를 통해 먹거리와 삶, 이를 둘러싼 관계에 관한 인식을 알게 되면서, 이후 인식조사와 FGI에서 한살림의 청년 조합원은 이 인식을 자신의 삶과 한살림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너무나 일상적이기에 가장 포기하기 쉬운 것이 먹거리인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끼니를 인식하여 여유롭게 먹기엔 시간적, 물리적 환경의 제약이 정말 큼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드러내고 한살림과 같은 먹거리 활동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어려움이 다른 이의 상황과 연결되고 있음을 인식할 때, 대안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번 연구를 통해 청년에게 먹거리 의제가 기후위기, 노동, 동물권 등 다양한 의제와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가진 먹거리에 관한 의제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 삶과 연결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먹거리를 공동체, 콘텐츠, 농업,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활동으로 풀어내는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활동이 모일 수 있는 지점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토론 질문>

- 1) 먹거리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2) 하고 계신 활동을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하시나요?
- 3) 먹거리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 4) 청년의 삶과 먹거리 의제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5) 한살림 운동과 하고 계신 활동의 연결 지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토론 참가자>

‘가영 - 벼밭’

대학 내에서 파머스마켓을 열어보자는 목표로 시작한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자립하며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벼밭은 의식 있는 먹거리 소비를 지향하며 식탁과 연결되는 요소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갑니다. 벼와 밭이 더불어 건강한 식사를 이어나가는 삶을 위해 벼밭은 함께 알아가고, 함께 먹기를 제안합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알고 먹을 수 있는 식탁, 그 과정을 조금 더 촘촘히 연결하고 싶습니다.

‘연다-소농로드(프로젝트그룹 ‘짓다’)

제주 구좌읍 평대리에서 프로젝트그룹 ‘짓다’로 반농반x(반은 농사, 반은 농사가 아닌 일로 살아가는 것)의 농사공동체를 만들고 있어요. 드나들이 자유로운 공동체 안에서 ‘외롭지 않을 권리’를 알려주고, 가족을 재해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역 안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일을 찾아가고, 소비지향적인 것이 아닌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름 - 유기농평크’

농대를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 농민단체와 인연이 생겨 농업 쪽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작은 도시텃밭을 가꾸며 농업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글과 영상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주로 소농과 농업·농촌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땅을 분해와 생산의 터전이자, 탄소를 가두는 방식으로 관계맺는 소농의 삶 속에서 순환을 배웠고, 도시에서나마 농민들에게 배운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을에 공동체 분해정원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잘 모르고, 사람이나 노동, 구조적인 문제가 지워지는 것에 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2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위한 담론

모심과살림연구소 청년연구팀 김진아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우리 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 것 같아요. 사람들은 흔히들 ‘요즘 청년들은 이렇다’라고 말하고들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의에 ‘아 맞아 나 그래’라고 완벽하게 공감해본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요즘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보면, 어쩌해야 한다는 기준 같은 것이 있다는 느낌마저 들어요. 소위 어른들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을 잘 따르는 청년들은 ‘기특한’청년이 되는 한 편, 그렇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청년은 ‘철없는’ 존재가 되기도 하죠. 말을 잘 듣는 ‘기특한’ 청년은 현재 기성세대 삶의 방식을 재생산하는 존재로서 인정받고 있죠. 왜 청년들은 누군가에 의해 평가되고 규정지어져야 할까요?

우리의 문제의식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년 먹거리 관련 조사를 제안받았을 때, 먹거리와 관련해서도 청년들은 특정한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미래를 위해 밥을 굶는 불쌍한 청년, 값비싼 전자기기는 잘 사면서 건강한 먹거리에는 관심이 없는 철없는 청년 등등의 모습으로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청년들이 먹거리와 관련해서 마주하는 일상의 고민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미래를 위해 밥을 굶는 청년들의 삶은 안타깝지만 청년의 어쩔 수 없는 일로 그려지기도 하죠. 하지만 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의 먹거리를 포기해야만 하는 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꼭 참아내야만 아름다운 미래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더라도 현재의 삶의 방식을 정답으로 상정하고 생각을 굽혀야 한다는 것은 나를 온전한 주체가 아닌 종속된 존재로 위치시킵니다. 한살림 안에서도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존재로만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청년 조합원들에게 한살림운동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만 전달되고 있고, 청년은 손을 뻗어 도와줘야 하며, 기성세대의 보호 아래에서만 좋은 먹거리를 먹거나, 생산할 수 있는 존재로만 이해되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청년 조합원들이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한살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삶의 고민과 맞닿은 지점에서 한살림운동에 동참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고있죠. 청년 조합원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위해 현재의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인식조사와 FGI를 진행했습니다.

인식조사와 FGI 소개(연구 요약)

이번 연구의 목적은 청년 조합원들의 주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었기에, 다양한 이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해 인식조사를 진행했어요. 한살림 20대 조합원은 전국에 약 4,157명이 있어요. 그 중 128명의 응답으로 인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동안 한살림에서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각자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한살림 운동에 함께 하고 있었어요.

먼저 이번 인식조사에서 드러났던 점은 청년 조합원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가입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지점입니다. 2018년 진행한 소비자조합원 인식조사에서 20대 청년들은 주로 누군가에 의해 소개를 받아 가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이후 점차 가입 계기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청년 조합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란 무엇일까요? 인식조사 참여자들의 응답을 분석해봤을 때, 건강의 의미가 개인적인 건강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먹거리 관심 계기를 묻는 질문에, ‘건강 문제로 인해’ 먹거리에 관심을 가진 이들 다음으로 기후위기 및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먹거리 생산과정에 관심이 생겨서, 먹거리 소비의 사회적 중요성에 관심이 생겨서가 각각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먹거리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맛’과 ‘친환경성’,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했지만 뒤이어 ‘구입처에 대한 신뢰’, ‘생산 과정과 방식’, ‘유통 과정과 방식’을 택한 이들이 약 15%가 되는 것을 보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개인적인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먹거리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환경 문제’, ‘건강 위협’, ‘공장식 축산’ 순으로 선택했는데,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먹거리와 환경 문제를 연결해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대 조합원들은 물품을 구입하는 매장으로서만 한살림을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20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에서 ‘한살림의 정신과 가치를 잘 알리는 활동’에 28.9%가 응답한 것으로 보아 물품을 교환하는 것을 넘어서 앞서 이야기한 환경과 같이 문제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사회적 의제와 한살림의 정신/가치의 연결 지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조합원 공간 마련’에 15.63%가 응답한 것으로 보아 청년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요구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있음과, 개개인의 삶에서 인식하고 발생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먹거리 의제를 인식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해당 의제들이 청년들의 삶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한살

림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FGI는 서술형 응답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엮어 세 가지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비건’, ‘성불평등과 인권’, ‘청년과 지역활동’. 총 6명의 20대 조합원들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해당 키워드와 먹거리 관련 고민이 어떻게 연결되었고, 연결되고 있는지, 향후 한살림운동과 해당 의제들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FGI를 통해서 청년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먹거리 의제를 삶의 문제와 연결해서 이야기할 때 노동, 비건, 여성 등의 의제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서 마주한 문제점들이 다 누군가의 삶(노동자, 동물, 여성)과 연결되어있다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이런 연결을 인지할 때 응답자들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왔던 것들에 사실은 구조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인식은 더 나아가, 자신의 먹거리를 생각할 때에도 다른 존재와의 연결을 고민하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특히 노동권, 동물권과 같이 생명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직면하면서 그동안 당연시 해왔던 생산시스템에 의문을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 대안적 먹거리에 대한 실천을 한살림이라는 공간에서 지향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한살림이 다른 기업과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윤을 목적으로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여러 사업 방식과 다른, 먹거리 생산과 소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을 경계하는 과정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청년들에게 ‘먹거리’ 의제는 여러 사회 의제를 드러내는 역할과 동시에 여러 문제들을 연결하는 매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는 대안적 먹거리 운동은 개개인이 삶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공간으로서 한살림의 가능성을 주목하는데요. 하지만 청년 조합원들은 한살림에서 이런 논의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논의를 만들어 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적 이데올로기의 작용, 소비자 정체성으로만 가두어진 청년 정체성, 특정 세대에만 집중된 활동이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장벽들이 허물어지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가치와 정체성이 받아들여지고 공존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앞선 분석에 따르면 청년들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한살림 가치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삶에서 마주한 고민들을 주체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한살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출발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이 공론장에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론장은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에게 지역은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의 문제로 큰 의미가 없는 공간이지만, ‘비빌 언덕’이라고 표현되는 수용과 지지의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상 속에서 삶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실천을 해 나갈 때에 주된 감정으로 ‘외로움’을 꼽습니다. 한살림은 조직의 목적과 비전에서 대안적 먹거리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청년들의 다양한 실천을 수용하고 지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현된다면 한살림은 청년들의 삶을 드러내고, 다양한 대안적 실천을 함께 만들어갈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갈 때 더 많은 청년들의 ‘비밀 언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커뮤니티는 비단 청년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한살림을 기성세대와의 공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에 대한 실천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토론 : 한살림에서 청년으로 존재하기

이 연구는 청년 세대의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게 드러난 문제와 먹거리 의제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운동의 변화 혹은 확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 의제와 관련해서 청년들의 고민들이 드러나고 주체로 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 연구를 통해 청년들이 인식하는 먹거리의제가 굉장히 많은 사회 의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런 의제 연결성은 당장 그런 것들이 삶의 위기로 다가오는 청년 세대에 의해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조합원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와 연결지어 먹거리 의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런 인식은 노동권, 동물권, 여성인권 등의 의제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살림운동이 이야기하는 ‘밥운동의 사회화’는 밥운동을 매개로 하는 사회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한살림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상황과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불평등과 배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한살림운동이 사회화 한다는 것은 먹거리와 연결될 수 있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매개가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는 한살림이 이것도 해야하고, 저것도 해야하고의 문제라기 보다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배제와 억압에 대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농산물의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 생산자들의 생활 안정 문제 등 다양한 면들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청년들은 세련된 한살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인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다양화하면서 혹은 새벽 배송을 하면서 한살림이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B, 25세)

지금까지 한살림에서 청년들은 어떻게 존재해왔나요? 한살림에서 청년들은 소비자, 생산자, 실무자, 활동가로 다양하게 존재해왔지만 그동안 그들의 고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논의에서 청년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철없는’, 가르침과 지원의 대상으로 머물러있다면, 그것은 청년들의 고민이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연구는 ‘도대체 청년들은 왜 저래?’에 대한 답을 찾는 연구는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들의 삶의 고민과 연결되는 먹거리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한살림운동의 변화와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관찰의 대상이 아니며, 한살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조합원들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청년을 대상화하지 않으면서 청년 먹거리와 관련한 정책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청년 조합원은 앞으로 더 오래 이 운동을 유지하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경험과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제들이 운동의 필요성과 실질적 실천 현장이 어디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살림운동의 동등한 참여 주체로서 그들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화의 장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청년은 보편적으로 규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대화를 가로막습니다. 이제 대화의 장벽을 허물고, 다양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한살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2030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토론 질문>

- 1) 한살림 운동이 가치있다고 느꼈던 순간은 어떤 때인가요?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 2) 한살림운동을 통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것이 있으신가요? 그 기대는 현재 어떻게 실현 혹은 좌절되고 있나요?
 - 3) 한살림에서 ‘청년’ 정체성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때 그런 것을 느끼나요?
 - 4) 한살림에서 이야기하는 청년과 실제 청년의 괴리가 느껴진 적이 있나요? 괴리를 느낀 적이 있다면, 그런 괴리를 극복하고 청년들의 삶과 한살림운동이 연결되기 위해(더 많은 청년들이 동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마지막으로 연구 보고서/발제/토론참여에 대한 소감을 나누어주세요!(1분 이내)

<토론 참가자>

‘현이-한살림실무자’

어려서부터 음식을 좋아했고,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회사로 외식프랜차이즈로 입사했는데, 제가 생각한 음식과 프랜차이즈의 음식은 달랐습니다. 외식프랜차이즈에서의 음식은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최대한으로 줄여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상품이었고, 여기에 대한 한계와 실망을 느껴 퇴사했습니다. 생각하는 음식에 대한 상이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생각했던 음식은 프랜차이즈의 상품보다는 좀 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음식을 다루는 일을 찾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살림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은주-한살림생산자’

안녕하세요 경남 고성 공룡나라 공동체에서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는 김은주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만을 고집하던 아버지의 유기농 농사의 결실은 항상 아쉬움뿐이었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많은 수확이 보장되는 농업이 아니라 무시당하기도 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노력을 알아 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살림과 함께 하게 된 뒤 그 아쉬움이 자부심으로 바뀌어 행복하게 농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소현-한살림조합원’

일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또, 비건 지향을 하게 되어 같은 방향으로 식생활의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민-한살림활동가’

식품이나 유통, 협동조합과 관련된 일은 한살림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 장을 보는 것 자체를 즐겼고, 한살림은 그 중 하나였습니다. 직전에 사업을 운영했었고, 잠깐 쉬고 있는 중이었는데 문자로 온 채용 공고를 보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연의 결과인 셈입니다. 일하고 있는 지금, 조합원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전까지 제가 했던 일들을 자주 반추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란 페르소나란 무엇인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살림의 청년-되기

모심과살림 청년연구진 박주석

연구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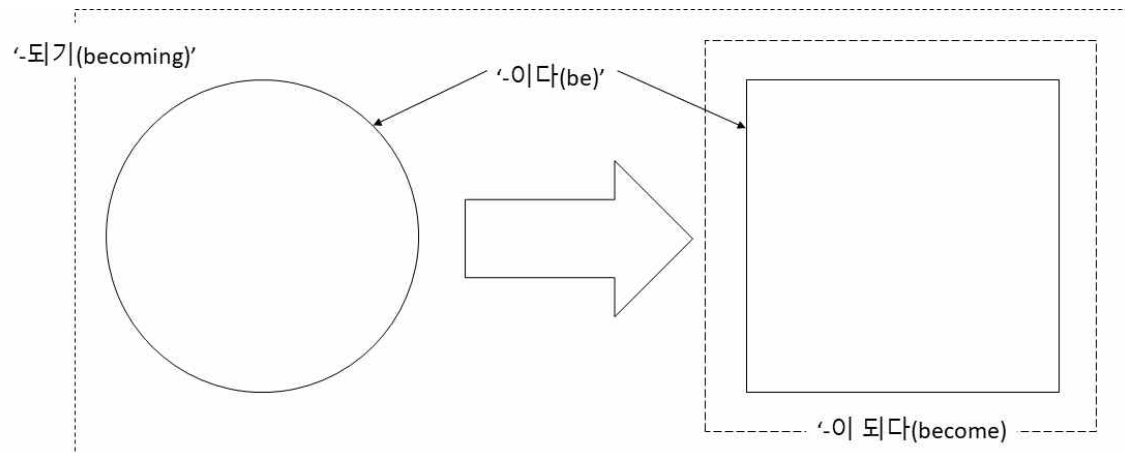
대부분 연구는 연구자들이 주목한 사람 혹은 현상을 추상화, 개념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추상화와 개념화 과정은 어떠한 틀에 대상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인물과 현상이더라도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행하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재인식의 과정입니다. 이미 인식하기 위한 틀이 있고, 이 틀을 통해 대상을 다시 인식하는 것이죠. 이 과정은 대상과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이고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활하게 재인식하기 위해서는 대상들이 수동적이고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나 현실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은 능동적이며 상호적입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고, 오늘 보고회까지 오면서 우리는 대상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대상이 우리를 인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능동적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하며, 참여자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한다고 여겨집니다. 허나, 우리의 연구가 의미를 갖고 현실에 작동하는 방식은 오히려 연구가 수동적이고, 연구의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규정짓기보다는 드러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연구팀의 한계로 이러한 의미를 보고서에 충분히 담지 못했습니다. 보고회 자리에 모인 분들은 이 연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계 맺은 분들입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서 연구의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연구를 완성해나가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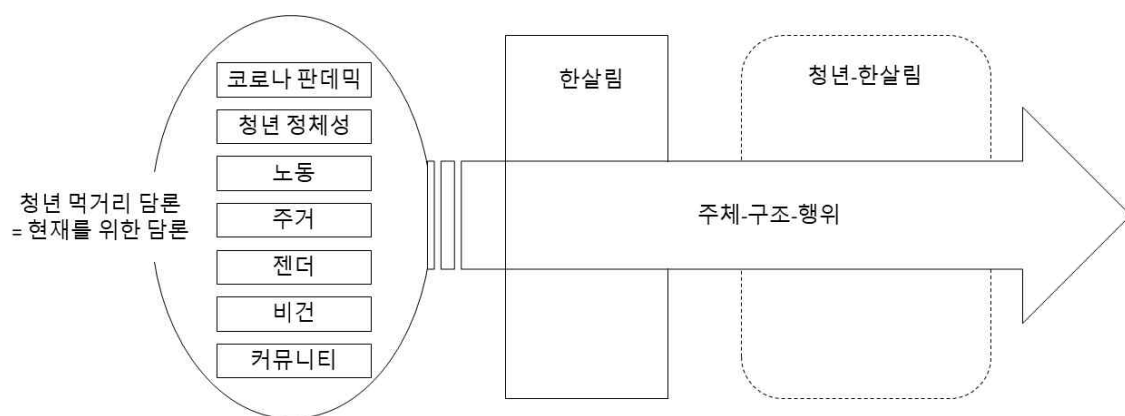
오래된 현재 한살림

30년 전에 제안된 생명 개념은 30년 전의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30년 사이 우리는 IMF와 세월호, 촛불집회와 페미니즘 리부트, 기후위기와 코로나19를 겪었습니다. 한살림은 「한살림선언」 30주년을 맞아 선언을 다시 쓰기보다는 기존의 가치를 확대·재생산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별도의 결의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가치가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재생산된다는 것은 기존의 가치에 담기지 못한 ‘타자’를 확대·재생산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청년 조합원들의 경험과 인식에서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되기(becoming)’란 ‘-이 되다(become)’ 혹은 ‘-이다(be)’와는 달리,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되기’는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생성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권력은 변화를 막고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변화해가는 과정인 -되기는 자연스레 소수성을 향해 이루어집니다.

즉, 한살림의 청년-되기는 30년 전의 가치를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가치에서 권력 관계에 따라 배제된 새로운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한살림을 재구성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곧 환대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구는 2030 청년조합원들에 의해 드러난 가치들을 일부 수용했을 뿐,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그동안 한살림에서 배제된 가치들이 더 드러나야 합니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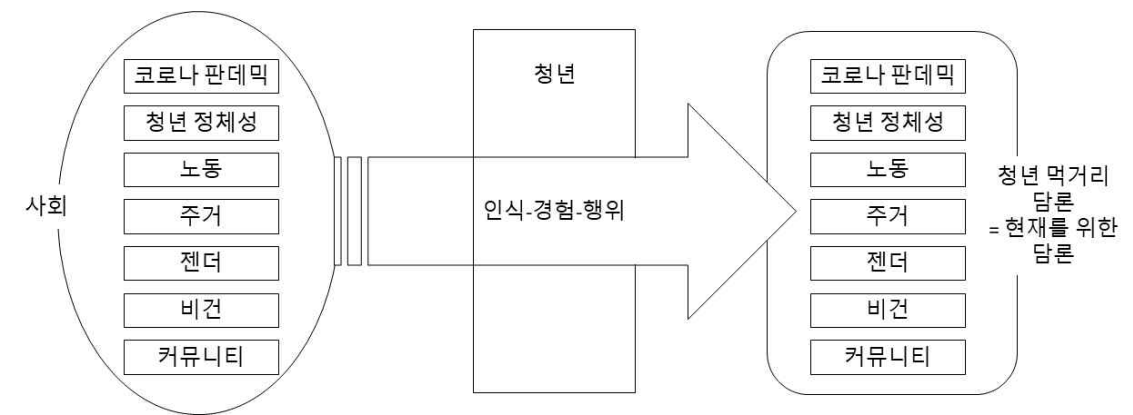


위 그림은 이 연구의 목적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드러난 청년 먹거리 담론이 한살림에게 작동해서 한살림의 청년-되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행위, 이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 구조를 만드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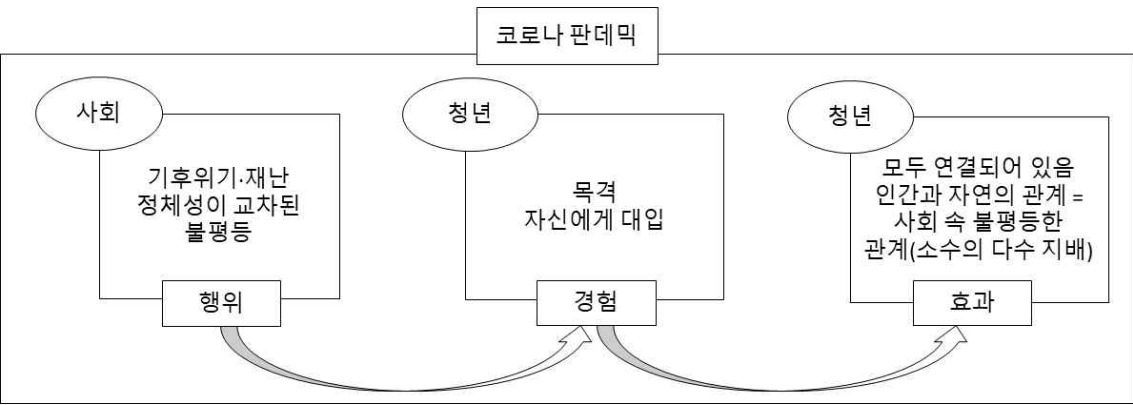
어졌을 때 한살림은 변화해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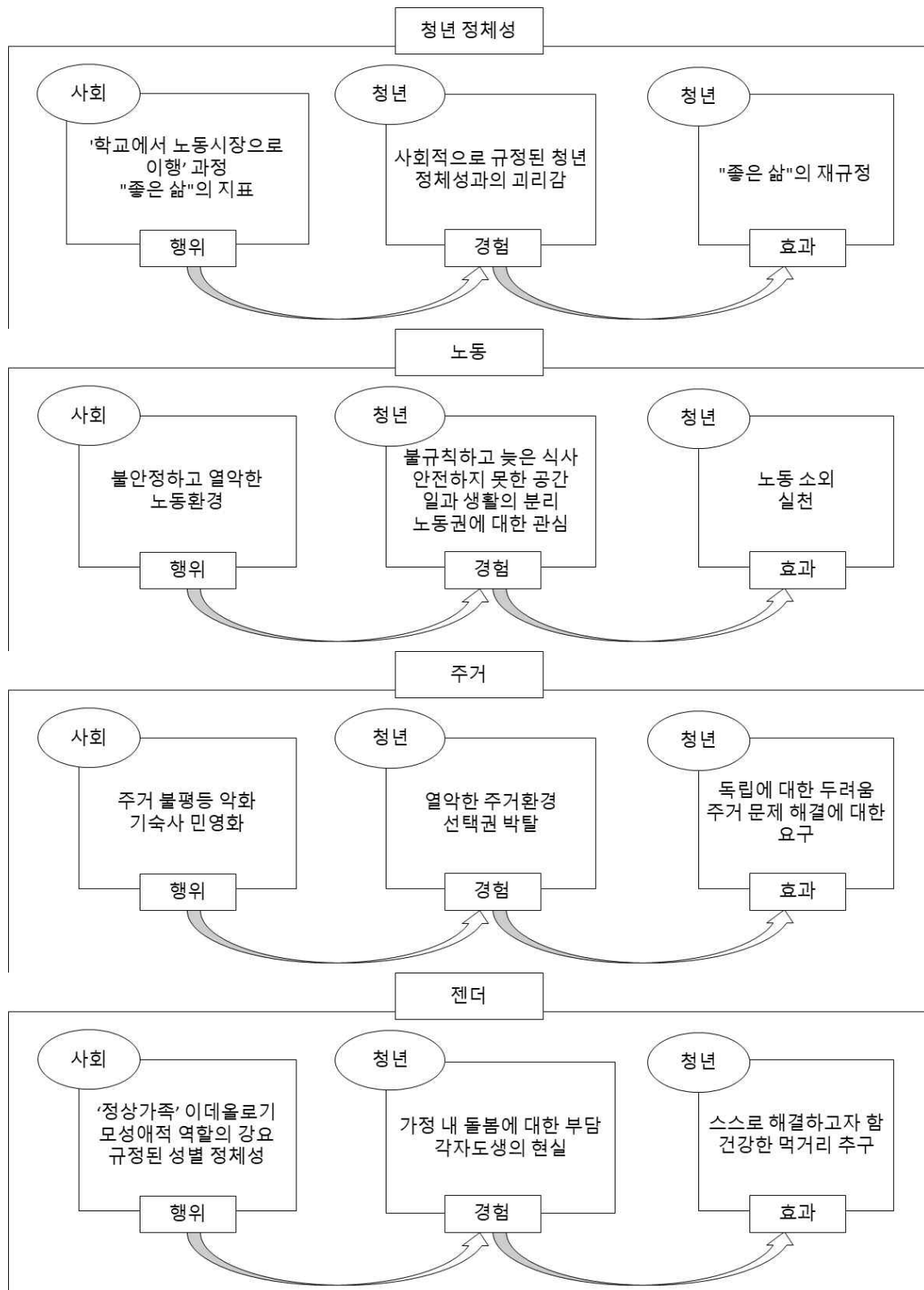
FGI를 통해 드러난 청년들의 경험과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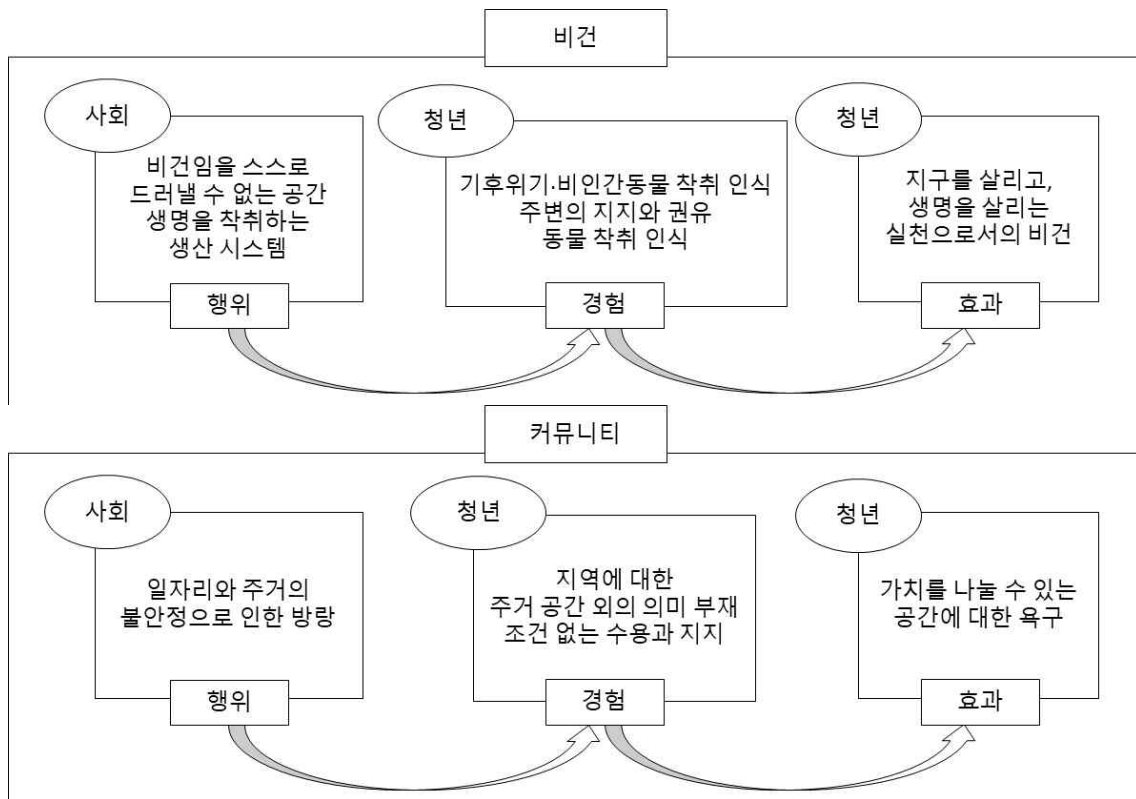
청년 연구진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청년 먹거리 담론은 크게 7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담론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을 청년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동시에 대응해나가는 과정에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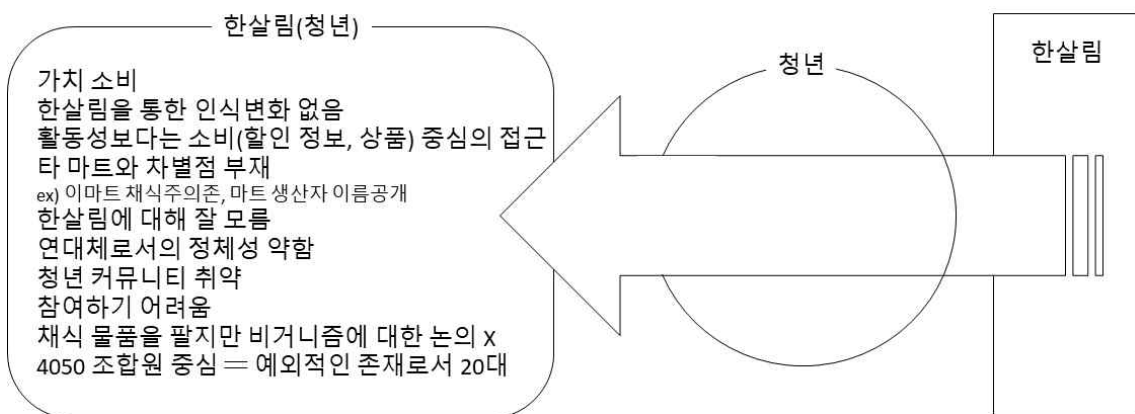
연구진이 청년조합원 FGI를 통해 드러난 내용들을 키워드별로 나누었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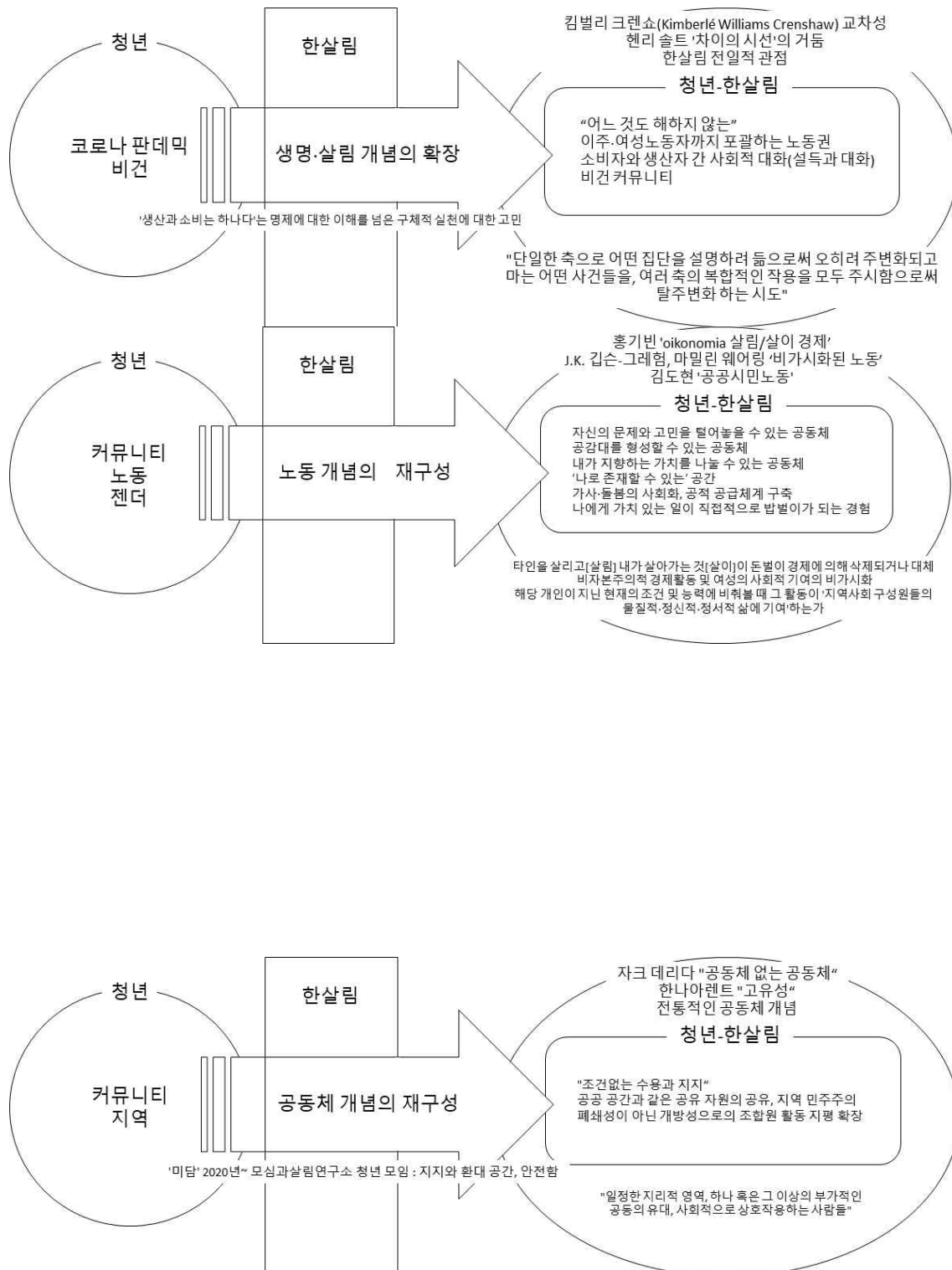




청년들이 인식한 한살림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간 대안, 그리고 체감한 한계를 통해 한살림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연구진이 모색해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진이 놓친 청년들의 경험과 주체적인 대응이 무엇이 있을지, 혹은 이미 발견 하였지만 이를 한살림 내에서 어떻게 구상할지에 대한 방안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참가자>

‘소영-한살림천안아산 조직활동가’

‘우준-한살림충주제천 농산물위원장’

‘슬기-한살림조합원, 페미니즘 활동가’

‘은빈-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



함께한 사람들

진아 789wlsdk@gmail.com
@jin_ah789

주석 cxh6573@naver.com
@sn_coment

기현 bae04092@gmail.com
@kh.kathe



현재를 위한 담론

한살림 청년 조합원 먹거리 인식 조사

